

### 3/9(수) 사사기 1-4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

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,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(1:1, 2:6).

- ❶ 역사적 : 지파별 정복전쟁 실패, 잔류한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어 감(1:1-2:5).
- ❷ 신학적 : 가나안 종교 근절 실패, 우상 숭배, 하나님을 배반함(2:6-3:6).

이스라엘은 더욱 폭력적이며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나아갑니다.

가나안 신을 섬길 뿐 아니라 직접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(17-18장).

종국엔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지파 간 내전이 일어납니다.

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사기 내내 더 추락하고 더 몰락합니다.

하나님은 <사사>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지만(2:16-17),

백성들은 그마저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매진합니다.

심지어 사사들도 대부분 자격미달인 사람들입니다.

가나안화 되어 타락과 일탈을 서슴지 않습니다.

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?

“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

**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**

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(2:10).”

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‘잊었다’고 합니다.

‘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’는 뜻입니다(3:7).

세대에서 세대로,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

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(2:7).

웃니엘 이야기는 그나마 모범적인 구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(3:7-11).

하나님은 <부르짖는>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.

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이 사사기에서도 수차례 반복될 것입니다(출3:7,9).

그러나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<부르짖는 일>조차 하지 않습니다.

(3:9,15,4:3,6:6,10:10)

**나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까?**

- ❶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, 날마다 구원을 경험합니까?
- ❷ 부모 세대가 지나도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까요?

시작기도 + 통독 사사기 1-4장